

수해피해 현황 공유·의견 청취

무주군, 전문가·주민 참여 용담·대청댐 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의 가제

무주군은 지난 7일 용담·대청댐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제4차 정기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사 용역 중인 수해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순재권 위원장(전북대 교수)과 박인환 3팀(용담·합천·섬진강댐) 공동위원장, 신태상 자문위원(환경부)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박효서 4군(무주, 영동, 금산, 옥천)공동대표, 박희용 무주군 주민피해대책위원장 등 주민, 용역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인홍 군수는 "끝나지 않은 수해피해 조사와 절차 진행으로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수마에 접혀있다"며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 주민들이 함께 하는 협의회가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손길일 때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용역사 책임연구원 노재경 교수로부터 수해조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교수는 제방월류와 제방붕괴 등 수해 유형을 비롯해 지역 별 피해지역 위치도와 사진, 조사 내용을 정리한 용담·대청댐 홍수피해 현황을 공유했다.

용담·대청댐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수해원인 규명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12월말에 구성이 됐으며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조정하고 용역사에서 진행하는 수해 원인조사 내용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8월(7.~9.) 평균 300mm가 넘는 폭우 속에서 용담 댐이 초당 최고 2,000톤 이상의 물을

갑자기 방류하며 발생한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었으며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읍과 부남면이 큰 피해를 입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3월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만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무주군은 그간 전 공무원이 피해 지역으로 일제 출장해 2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용담댐 피해 순해사정조사(용역 국비 1억9,000여만원 투입)에 착수했다.

조사는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순해사정법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부남면에서 무주읍까지 용담댐 하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아이스 팩 재사용 활성화 총력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약 체결

무주군이 최근 사용량 급증으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아이스 팩(젤 타입 고효율수성 수지)'의 재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거점지역 15곳(읍·면 행정복지센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수거, 세척, 소독

후 수요처에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일에는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와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회장 박용식),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 무진장축협무주지점(지점장 정희준), 반햇소영농조합법인(대표 전병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무주군은 아이스 팩 재사용을 위한 수요처 발굴과 홍보

등 사업 전 과정을 총괄 관리,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아이스 팩의 수거와 운반, 세척, 소독을 전담하고 수요처에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수요처가 될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 무진장축협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시장상인회, 반햇소영농조합법인은 수거된 아이스 팩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코 했다.

한편, 5월 중순부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 팩 5개를 가져가면 10리터짜리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을 해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진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어린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등록급식소(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손 씻기 홍보 사업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홍삼클러스터사업단과 협업해 관내 어린이집 식단에 면역력 향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안 홍삼을 활용한 '홍삼군데리아끼달걀밥'을 개발해 메뉴를 선보였으며, 급식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ZOOM 활용)을 통해 '홍삼군데리아끼' 조리교육을 시행해 어린이들도 홍삼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장영수 군수와 각 실·과장은 지난 3~7일까지 관내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문은 사업장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개선하는 등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누리파크 활성화 사업,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공사 및 연결도로 개선사업 등 총 26개소를 방문해 주민 의견 청취,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장 군수는 장계 복합문화센터의 적절한 공간배분을 주문하며 주변 사업장들이 협업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에는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질서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진출입로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부지 내에 토요상설장터 등을 조성하는 등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모색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공사 및 연결도로 개선사업지 방문을 통해 장 군수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 편의의 향상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활죽감자 재배시설 시범사업지와 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 시범사업지(머위) 등에서는 홍보·판매 등의 지원을 통한 유통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7일 진안을 연장리에서 전춘성 진안군수, 이한기 도의원,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흑돼지 축산물 가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흑돼지 축산물 가공시설 준공

진안군, 흑돼지 농가 수익 제고·사육기반 안정 도모 등 기대

진안군은 지난 7일 진안을 연장리에서 흑돼지 축산물 가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이한기 도의원,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공시설은 지난 2019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3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국비 1억4,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부터 농업회사법인 무진장축산물유통(대표 박천호)가 추진해왔다.

이번 가공공장 준공으로 흑돼지 농가 수익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사육기반 안정을 도모하며, 사육 흑돼지 개체수 증가에도 탄력을 받아 관내 흑돼지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축산물 가공장은 생산설비 현대화와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일일 생산량이 0.7톤에서 최대 8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거래처 요구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확보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생산 물품은 흑돼지 고기로 만든 돈가스, 떡갈비 등이며 홍삼, 갯잎 등 진안군 농·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마음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이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10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월 1일 주민등록거주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1인 가구 137만873원, 3인 298만7,963원) 이하이며 재산이 3억원 이하, 2019년~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는 세대주가 복지포(http://bokj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기존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

지생계지원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피해농업인 지원, 피해어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과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에 선발되면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가구별 50만원 지급이 되며, 소규모 농가 등에 지원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수급가구는 차액 20만원을 지원 받는다.

황인홍 군수는 "6월은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이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가축시장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장수군은 가축시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상승하고 일평균 확진자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가축시장 개장일인 매달 3일과 18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정하고 무진장 축협과 함께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가축시장 전면 소독, 출입자 소독, 시장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방역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가축 유통인 및 출하자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가축시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군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재개장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진안 군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운영을 1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수영장 운영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이뤄지며 진안군민만 입장이 가능하고, 자유 수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감속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 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 토요일 06시부터 18시, 일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1일 2회씩 방역·소독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휴식 시간은 매일 12~13시, 17~18시로 출입이 제한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입장할 수 없으며, 수영장 내에서 이용자 간 최소 2m이상 간격을 유지해야하며 샤워실 및 탈의실에서는 거리를 유지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손 소독 및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